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53호

2025.07.03.(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미국·반도체	美, 中 공장에 미국산 기술 장비 반입 제한	중국·구리	구리 제련업체, 제련 물량 확보 애로
중국·제조업	中 제조업 PMI 3달째 기준치 하회	미국·ESS	테슬라, 中에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EU·정책	EU, CSRD-CSDDD 간소화 입장 채택	콩고·코발트	콩고, 코발트 수출금지 3개월 연장
미국·광물	美, 해외 광물개발 정책 변경 발표	인니·배터리	CATL과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 착수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반도체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첨단 반도체 기술·장비 둘러싼 美-中 패권 경쟁 가속화
중국·구리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구리 제련 용량 급격한 확장... 제련업체 물량 확보 애로
중국·제조업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중국 제조업 PMI 세달째 기준치 미만... 제조업 경기 위축 우려

산업·품목 심층분석

호주·희토류	희토류 공급망의 새로운 축, 호주: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서다
--------	------------------------------------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일본, 전력 소비 많은 공장·업체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	-----------------------------------

II. 월간 공급망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규소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전략광물의 공급 위험 및 파급효과

IV. 공급망 소식통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7.1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 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미국, 반도체 美, 中 공장에 미국산 기술·장비 반입 제한	6.20.(금)	✓ 美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미국 기술 사용 허용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철회 시, 삼성전자·TSMC 등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美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함	<u>로이터</u>
2	중국, 구리 구리 제련업체, 제련 물량 확보 애로	6.27.(금)	✓ 구리 제련용량의 급격한 확장으로 제련소 간 경쟁 과열되어 처리·정제 수수료 마이너스 현상 발생 ✓ 中 구리 제련소들이 칠레 광산업체 안토파가스타와 처리·정제 수수료 0달러 계약을 체결	<u>로이터</u>
3	중국, 제조업 中 제조업 PMI 3달째 기준치 하회	6.30.(월)	✓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3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함 ✓ 6월 제조업 PMI는 미중 간 관세 90일 유예 합의 후 한 달간의 동향이 온전히 반영된 첫 수치	<u>CNBC</u>
4	미국, ESS 테슬라, 中에 에너지저장장치 건설	6.20.(금)	✓ 테슬라는 中에 링강 자유무역구에 자사의 첫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하기로 결정 ✓ 테슬라와 중국은 향후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	<u>CNBC</u>
5	EU, 정책 EU, CSRD·CSDDD 간소화 입장 채택	6.23.(월)	✓ EU 이사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간소화를 위한 입장 공식 채택 ✓ 보고·실사 의무 적용 대상 축소, 실행 시점 및 계획 수립 의무 유예 내용 포함	<u>EU 이사회</u>
6	콩고, 코발트 콩고, 코발트 수출금지 3개월 연장	6.23.(월)	✓ 콩고민주공화국은 '25.9월까지 코발트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 ✓ ARECOMS(콩고전략광물감독청)은 국내외 코발트 시장 재고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고 밝힘	<u>로이터</u>
7	미국, 광물 美, 해외 광물개발 정책 변경 발표	6.25.(수)	✓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주요 광물에 대한 탐색 및 개발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정책 변경을 발표 ✓ 美 내무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이 초기 단계 탐사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u>미 내무부</u>
8	인니, 배터리 인니, CATL과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 착수	6.29.(일)	✓ 인니, 中 배터리 기업 CATL과 60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에 착수 ✓ 프로젝트는 광산 채굴, 제련소, 고압산 침출 공정,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등 여러 공정 통합	<u>로이터</u>

주간 이슈 포커스

1 마·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마·중, 반도체 첨단 반도체 기술·장비 둘러싼 美-中 패권 경쟁 가속화



美, 삼성·TSMC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 검토 중

미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부여했던 중국 공장용 수출 승인의 철회를 검토 중

미국은 2022년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규제를 도입한 뒤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와 같은 외국계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VEU* 지위를 부여해 일정 조건 하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Validated End-User, 미 상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미국 정부가 특정 외국 기업을 사전 승인한 후,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수출심사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

백악관은 해당 조치를 바로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만일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무산되거나 양국 관계에 중대한 충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도구 중 하나”라고 설명

출처: 로이터(6.20.)

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65조 원 규모 펀드 설립



중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 위안(약 64조 6,410억 원) 규모의 3차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ICF)를 조성

'25.5월에 발표된 '3차 빅펀드'는 2014년 1차(1,387억 위안)와 2019년 2차(2,041억 위안) 펀드를 합친 규모와 맞먹으며, 칩 제조, 설계, 장비, 소재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될 예정임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중국 반도체 공급망의 자립과 첨단화, 국산 소재 및 장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함

출처: 로이터(5.27.)

중국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 더 알아보기

구분	1차 펀드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2차 펀드 장비·테스트 등 전문 분야 집중	3차 펀드 미국 의존도 해소
설립 시기	2014년	2019년	2024년
투자 금액	1,387억 위안(약 26.2조 원)	2,041억 위안(약 38.55조 원)	3,440억 위안(약 65조 원)
투자 분야	파운드리 확장, 집적회로설계, 메모리, 조립·테스트·패키징, 장비 소재 투자	에칭, 테스트, 세정 등 일부 고급 장비, 설비 확장	노광장비, EDA 소프트웨어, 첨단 칩, 소재, 패키징, AI 반도체 등
주요 전략	용량 및 설계 역량 강화	자급자족 및 통제가능한 산업체인 구축, 전문 장비 투자 강화	기술 병목 해소, AI·첨단 칩 집중, 장기 투자(15년)
특징	시장이 주도한 다양한 분야에의 분산 투자	전문성과 자립성 강화 시도, 부패·투자 실패 경험	국가 주도 금융기관 참여, 장기 전략, 병목 기술 집중 공략, 산업 통합 유도

▶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수출규제와 첨단 장비에의 접근 제한으로 인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이 단기간 내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분석함.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핵심 특허와 장비를 장악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우회하거나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자립과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함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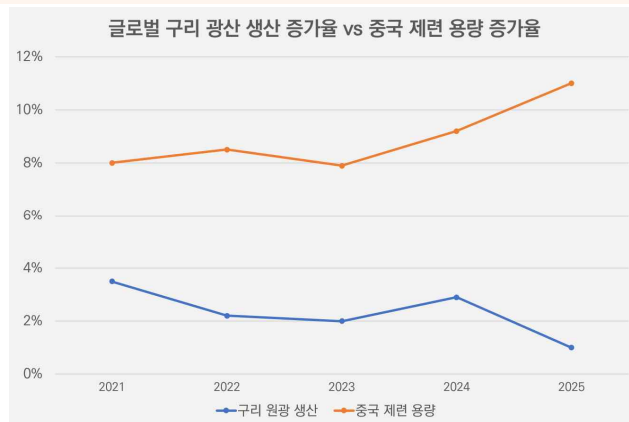
중국, 구리 구리 제련 용량 급격한 확장… 제련업체 물량 확보 애로

구리 농축액 부족 및 제련 용량 과잉 현상으로 인해 중국 구리 제련소들과 칠레 국영 광산업체 안토파가스타는 처리·정제 수수료(TCRC) 0달러에 합의함

최근 처리·정제 수수료가 -45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여 제련소가 되려 광산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나은 결과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함

구리 처리·정제 수수료 하락 원인: 원료는 부족, 제련 용량은 풍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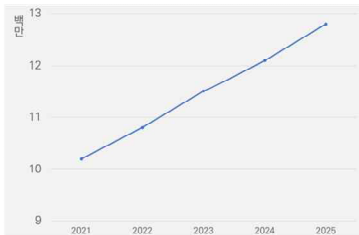
세계 최대 구리 제련 국가인 중국의 구리 제련 용량 확대 속도가
글로벌 구리 농축액의 공급 증가 속도를 초월



- ▶ 중국은 전 세계 제련 구리의 약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련 용량 확장으로 인한 원료 부족 현상은 글로벌 구리 제련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유럽·북미·동남아시아 등에 위치한 주요 제련소들도 원료 부족 및 마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실제로 필리핀의 글렌코어 제련소 등은 미리 가동 중단이나 관리보수 상태임
- ▶ '25년 3월 기준, 중국 외 지역 구리 제련소 비가동률이 14.9%로 급등하여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고 있음

중국 구리 제련용량 급격한 확장

2021~2025년 중국 구리 제련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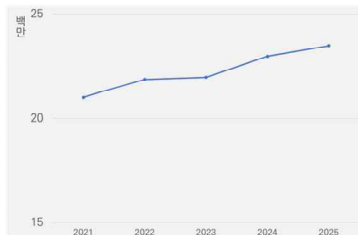


* 2025년 구리 제련용량은 BMI 예측치 사용

- ▶ 중국은 2021년 이후 구리 제련 용량을 25% 확장하며 글로벌 제련 용량의 97%를 차지하게 됨
- ▶ 2025년 중국의 총 제련 용량은 12.78백만 톤에 달하며, 올해만 추가로 10% 확대할 예정임
- ▶ 2025년 5월 중국의 정제구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하여 1.254백만 톤 기록

구리 농축액 생산량 완만한 상승

2021~2025년 글로벌 구리 농축액 생산량



- ▶ 글로벌 구리 농축액 생산량은 중국의 제련용량 확장과 대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 국제구리연구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100만 톤에서 2025년 2,350만 톤으로 약 12% 증가에 그침
- ▶ 이는 중국 제련용량 증가율 25%의 절반 수준으로, 글로벌 구리 농축액 부족 현상의 근본 원인임

개발 사이클 불일치

광산 개발 기간 vs 제련소 건설 기간



- ▶ 구리 광산 개발에는 평균 17.9년이 소요되는 반면, 제련소 건설에는 18~24개월이 소요됨 (S&P 마켓 인텔리전스)
- * 미국의 경우, 광산 개발에 평균 29년이 소요되어 국가에 따라서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 개발 사이클의 차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제련 용량이 원료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

- ▶ 글로벌 구리 농축액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한국 제련업체들은 농축액 확보 경쟁에서 중국에 밀려 원재료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음. 제련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감산이나 생산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구리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구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기차·반도체 등 구리 수요가 많은 한국 제조업 전반에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출처: 로이터(6.27.),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6.22.)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중국, 제조업 중국 제조업 PMI 세달째 기준치 미만... 제조업 경기 위축 우려

AI가 선정한 이슈

2025.6.23일부터 30일까지의 공급망 관련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 6.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하락**을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이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점은?

A.

▶ 중간재 수출 타격 우려

한국은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중국 제조업 부진은 반도체, 화학, 철강 등 주력 중간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부품,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 공급망 다변화 기회 확대

중국 제조업 부진은 한국 기업에게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대안적 공급기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원자재 조달 구조 재검토 필요

중국이 글로벌 원자재 가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 부진은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PMI 지표 더 알아보기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제조업 PMI가 5월보다 0.2p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전달보다는 소폭 상승했으나, 석 달 연속 기준선(50)을 하회함.

블룸버그는 6월 중국 제조업 PMI에 대해 미-중 간 관세 90일 유예 조치가 실제로 중국 제조업 현장에 미친 영향을 처음으로 완전히 반영한 경기지표라고 해석함. PMI가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 경기 개선의 조짐일지, PMI가 3달째 기준치를 하회한 것이 구조적 불확실성의 지속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PMI 지수 하락 및 상승 사례

▶ **2015년 8~9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7로 하락하며 경기 침체 신호를 보임. 이는 2014년부터 이어진 철강 산업의 과잉 설비와 부동산 경기둔화가 제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함.

▶ **2020년 11월**, 중국 제조업 PMI는 52.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내수와 생산이 빠르게 회복했으며, 제조업 전반에서 강한 확장세를 보임.

▶ **2021년 8~9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및 에너지 공급 제한으로 중국 제조업 PMI는 49.2로 하락함.

출처: S&P Global, 블룸버그(6.28.)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더 알아보기

▶ 국가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선행지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각국의 제조업 경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경기지표임. 주요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공급업체 납기, ▲원자재 재고 5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전월 대비 증감 여부를 설문조사해 각 항목을 가중합하여 산출함. 대표적인 발표기관으로는 미국공급관리협회(ISM), S&P Global, 중국 국가통계국(NBS) 등이 있음

▶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중국 국가통계국이 계산하는 제조업 PMI는 상기 5가지의 항목에 아래와 같은 가중치를 두어 산출됨
- 신규 주문 30%, 생산 25%, 고용 20%, 공급업체 납기 15%, 원자재 재고 10%

◆ 산업·품목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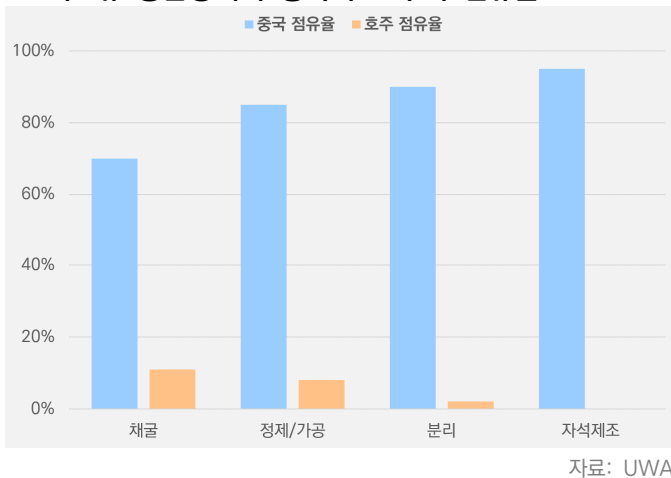
호주, 희토류 희토류 공급망의 새로운 축, 호주: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서다

2025년,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지정학적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 국가들은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산업 안정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호에서는 채굴부터 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해낸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을 살펴보았음. 이번 호에서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던 호주의 현주소와 호주 정부의 전략적인 비전을 살펴보고자 함

호주 희토류 공급망 발전: 현재와 미래

호주 희토류 산업은 업스트림에 집중되어 있어 채굴 단계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정제·가공 및 생산 단계에는 참여율이 낮음. 호주 정부는 호주 희토류 시장 규모를 키워 현재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호주산 희토류가 선택가능한 대안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과 호주의 점유율



▶ 현재 호주는 채굴 단계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단계에서의 점유율은 8%로 참여가 제한적임. 분리,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제품 생산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호주의 희토류 생산량은 1만 3천 톤으로 세계 2위이며, 중국(1위)의 생산량은 27만 톤임(USGS)

▶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희토류 공급망에서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채굴 단계에서의 점유율을 15%로 확대하고, 정제·가공 단계에서는 20%, 분리 부문에서는 15%, 자석 제조 단계는 5%대 점유율로 진입하여 상업 생산에 도전할 예정임

▶ 호주 핵심광물 전략과 국내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

📌 2023~2030 호주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

- ▶ 호주는 2023.6월, 핵심광물 부문 성장을 위한 정부 전략 보고서 「2023-2030 핵심광물전략」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핵심광물 부문의 목표를 선정함

📌 국내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A Future Made in Australia)

- ▶ 2024년 5월,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핵심광물 가공 분야를 포함한 국내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에 227억 호주 달러(약 20.4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함
- ▶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자국 첨단 제조산업 보호 기조에 맞춰 핵심광물 및 제조 공급망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

희토류는 전기차·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임. 호주 정부는 위의 국가 전략 및 정책을 통해 현재 업스트림에 집중된 자국의 희토류 공급망을 발전시킬 수 있음. 또한 호주 내의 희토류 프로젝트(칼굴리, 더보, 브라운스 레인지 등)에 대규모 공적 자금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공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됨

호주 희토류 프로젝트: 마운트 웰드를 중심으로

호주 유일의 희토류 광산: 마운트 웰드

호주 서부에 위치한 마운트 웰드 광산은 현재 호주에서 유일하게 희토류를 생산하는 광산이며,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가 운영하고 있음. 이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매장지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하여 지표면에서 60미터 이내의 얇은 깊이에 고품위의 희토류 광석이 매장되어있어 채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자료: UWA

- ▶ 마운트 웰드 광산에서 채굴된 희토류는 말레이시아 쿠안탄의 정제시설로 운송되어 처리되며, 일부는 2024년 개장한 서부 호주 칼굴리 처리 시설에서 1차 가공을 거침. 그러나 최종 분리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 ▶ 현재 칼굴리 시설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희토류 산화물은 생산하지 않고 있음. 마운트 웰드에서 채굴된 희토류 농축물은 혼합 탄산염 형태로 생산되어 말레이시아 정제소에 보내짐. 말레이시아 쿠안탄 정제소에서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등 고부가가치 희토류 산화물을 분리하고 있음

라이너스 정제소 비교

구분	말레이시아 쿠안탄 정제소	호주 칼굴리 정제소	미국 텍사스 정제소
위치	말레이시아 쿠안탄	호주 서부 칼굴리	미국 텍사스 시드리프트
운영 시기	2012년~	2024년 6월~	2026년 운영 예정
총 투자 비용	8억 호주달러 (약 7,100억 원)	8억 호주달러 (약 7,100억 원)	4.42억 호주달러(미국 정부 지원) (약 4,000억 원)
연간 생산 용량 (생산물)	10,500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9,000톤 (혼합 희토류 탄산염)	1,250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중희토류 생산	연간 1,500톤	없음	중희토류 분리 능력 포함
주요 처리 공정	크래킹-리칭-용매추출-분리	크래킹-리칭	분리-정제
최종 생산품	희토류 산화물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슴, 테르븀 등)	혼합 희토류 탄산염	희토류 산화물
전략적 목적	대량 상업 생산	호주 내 중간 가공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자료: Lynas

라이너스는 마운트 웰드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세 개의 정제소에서 가공하는 글로벌 공급망 모델을 구축함. 각 정제소는 서로 다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쿠안탄 정제소: 대량 생산의 중심

말레이시아 쿠안탄에 위치한 정제소는 라이너스의 핵심 생산기지로서, 연간 10,500톤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외 희토류 정제소임. 쿠안탄 정제소는 2025년부터 중희토류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특히 디스프로슴과 테르븀의 분리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중국 외 지역에서 최초임

🔍 칼굴리 정제소: 호주 내 가공 능력 강화

칼굴리 정제소는 호주 내 희토류 가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시설로서, 연간 9,000톤의 혼합 희토류 탄산염을 생산할 수 있음. 올해부터 연간 12,000톤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 생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약 20년간 유지할 계획임. 향후 호주 내에서 더 많은 하류 공정을 담당할 전망이므로, 칼굴리 정제소는 중국 외 지역의 희토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제3자 공급업체의 농축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호주 희토류 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텍사스 정제소: 전략적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텍사스주 시드리프트(Seadrift)에 건설 중인 라이나스 정제소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구조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있음.

첫째,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대안임.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중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 사용되므로, 중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는 산업 안정성 제고와 국가안보 강화에 필수적임. 특히, 호주와 긴밀하게 핵심광물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이기도 함. 둘째, 현재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라이나스의 정제 능력을 지리적으로 분산시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함임.

🔍 기타 주요 희토류 프로젝트

호주 전역에는 다양한 희토류 프로젝트들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

프로젝트명	위치	총 희토류 산화물 매장량(TREO)	가동 시기	비고
Nolans	노던 테리토리, Alice Spring에서 북쪽으로 135km	5,600만 톤 (약 2.6% TREO)	2025년 전후 ^{잠정}	-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비중 높음, - 인근 인프라 우수, - 인광석·우라늄·토륨 부존
Yangibana	서호주 가스코인, 카나본 북동쪽 250~270km	2,093만 톤 (약 0.9% TREO)	2025년 중 ^{잠정}	-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비중 세계 최고 수준 (최대 52%) - 혼합 희토류 탄산염(Mixed Rare Earth Carbonate, MREC) 생산
Browns Range	서호주 북부	380만 톤 (약 2.6% TREO)	파일럿 생산 중	- 중희토류, 특히 디스프로슘 비중 높음 - 고순도 중희토류 생산 - 개방형 및 지하 광산
Dubbo	뉴사우스웨일스 주, 더보 인근	1,890만 톤 (약 0.735% TREO)	건설 준비 (승인 완료)	- 희토류·지르코늄·니오븀·하프늄 등 복합 광물 매장 - 고순도 금속·합금 생산

호주 희토류 공급망의 과제

호주 희토류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imarc 그룹에 의하면 호주 희토류 시장 규모는 2024년 348.32백만 달러에서 2033년까지 1,101.3백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12.2% 성장률을 의미함. 호주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 세제 지원,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는 호주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호주가 단순한 원료 공급국을 넘어 정제·분리 등 중간 단계까지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글로벌 신뢰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함. 특히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호주 내 가공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능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하고, 서방 동맹국들에게 신뢰받는 대안 공급원으로 호주를 격상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한계도 분명함.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방 국가의 희토류 가공 비용은 중국 대비 3배 이상 높고, 기술력과 인프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완전한 수직통합 공급망 구축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음. 또한, 정부 지원이 주로 가공 중간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하류 단계로 진입이 제한적임. 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임

출처

- Hilliard, M. (2023, July 23). UWA. <https://defenceuwa.com.au/publications/policy-briefs/between-a-rock-and-a-hard-place-a-risk-analysis-of-australias-rare-earth-supply-chain-strategy/>
- Cachia, clive . (2023, July 12). The National Law Review. <https://natlawreview.com/article/australia-s-pitch-net-zero-future-critical-minerals-strategy>
- Mining Technology. (2024, November 11). <https://www.mining-technology.com/news/lynas-opens-australias-first-rare/>
- Lynas. (n.d.). Lynas. <https://lynasrareearths.com/mt-weld-western-australia-2/>
- Chater, J. (2025, April 25).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86je4vyg36o>
- (2025, May 16). Mining.Com. <https://www.mining.com/lynas-becomes-first-producer-of-heavy-rare-earths-outside-china/>
- Zadeh, J. (2025, June 15). Discovery Alert. <https://discoveryalert.com.au/news/rare-earth-market-geopolitical-tensions-2025/>
- KOTRA. (n.d.). 2024 호주 핵심광물 프로젝트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4(019)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넵

에너지 일본, 전력 소비 많은 공장·업체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 ☐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석 연료 이용이 많은 사업자에게 공장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임
- ▶ '25.2월, 일본은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전체 에너지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까지 23~29%로 늘리기로 함
- ▶ 일본 정부는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27년부터 약 14,000개의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요구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출처: 닛케이(6.30.)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4주)

비철금속 | 정광수급 차질로 인한 동 가격 ↑, 인니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5월	전년비(%)	6.3주	6.4주	전주비(%)
동	9,147	9,352	2.2	9,811	9,988	1.8%
니켈	16,812	15,448	△8.1	14,845	14,829	△0.1%
아연	2,779	2,757	△0.8	2,613	2,703	3.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 (동) 美 경기지표 둔화에 따른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제기로 인한 달러가치 하락 및 정광수급 차질로 인한 동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및 메이저 광산의 생산 차질로 상기 상방 압력 심화
- ☐ (니켈) ▲인도네시아의 정련 니켈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공급 과잉, ▲중국 경기지표 둔화, ▲미국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에 따른 스테인리스 시장약세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강 | 달러가치 하락 및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철광석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5월	전년비(%)	6.1주	6.2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6.44	△22.0	111.49	109.02	△2.2%
원료탄	240.90	186.13	△22.7	175.54	174.06	△0.8%
철광석	109.89	101.78	△7.4	92.03	92.33	0.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 (유연탄)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중국의 산업경기 둔화 우려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 (철광석) 美 연준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 및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으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4주)

희소금속 | 마진 저하로 中 생산업체 공급 감소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5월	전년비(%)	6.3주	6.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02	△8.3	1,068	1,068	-
탄산리튬	12,526	9,865	△21.2	8,360	8,391	0.4%
수산화리튬	11,398	9,418	△17.4	8,343	8,199	△1.7%
코발트 (U\$/lb)	16.25	16.99	4.6	19.5	19.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8,960	△7.2	250,900	250,750	△0.1%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0,737	9.1	63,300	63,470	0.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금주 중국 생산업체들의 공급 감소로 전주 대비 탄산리튬 가격 상승

🔍 주요 생산업체들의 수익 마진 저하로 일부 업체 생산 중단 및 저가 판매 기피 현상 심화에 기인

📦 (수산화리튬) 美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업체들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전주 대비 가격 하락

에너지 |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6.3주	6.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1.85	△7.73	75.16	69.98	△5.17
브렌트유	79.86	70.70	△9.15	76.45	68.51	△7.94
WTI	75.76	67.39	△8.37	74.17	65.76	△8.41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합의로 지정학 리스크 완화되어 유가 하락

🔍 6.21일 美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6.23일 유가는 Brent 기준 80불대로 시작하여, 이후 美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발표되면서 6.24일 이후 유가는 Brent 기준 60불대로 복귀

🔍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임 조기 지명 가능성이 대두되며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한 것이 상가 유가 하락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

월간 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품목 심층분석 - 규소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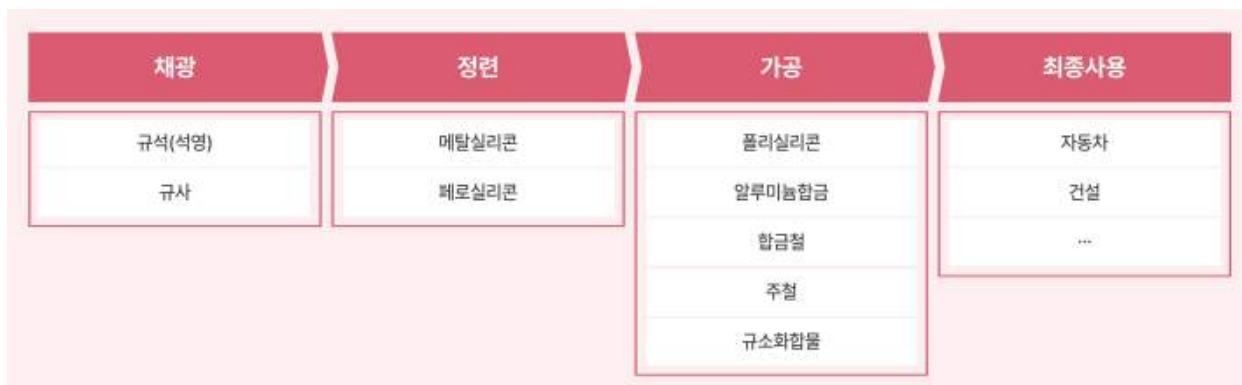
☐ 규소 품목 개요

- ☞ 실리콘으로도 불리는 규소는 회백색의 결정으로 지구 지각에서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임
- ☞ 자연 상태에서는 원소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이산화규소의 형태나 지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산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규산염에 포함되어 있음
- ☞ 녹는점이 높고, 단단하여 반도체의 재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 탄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주기율표에는 탄소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와 달리 금속과 비금속의 특성을 모두 갖는 준금속으로 반도체적 성질을 갖고 있음

☐ 규소 가치사슬

- ☞ 규소의 가치사슬 구조는 채광, 정련, 가공, 최종 사용으로 구성됨

[그림 1] 규소 가치사슬 구조



☐ 규소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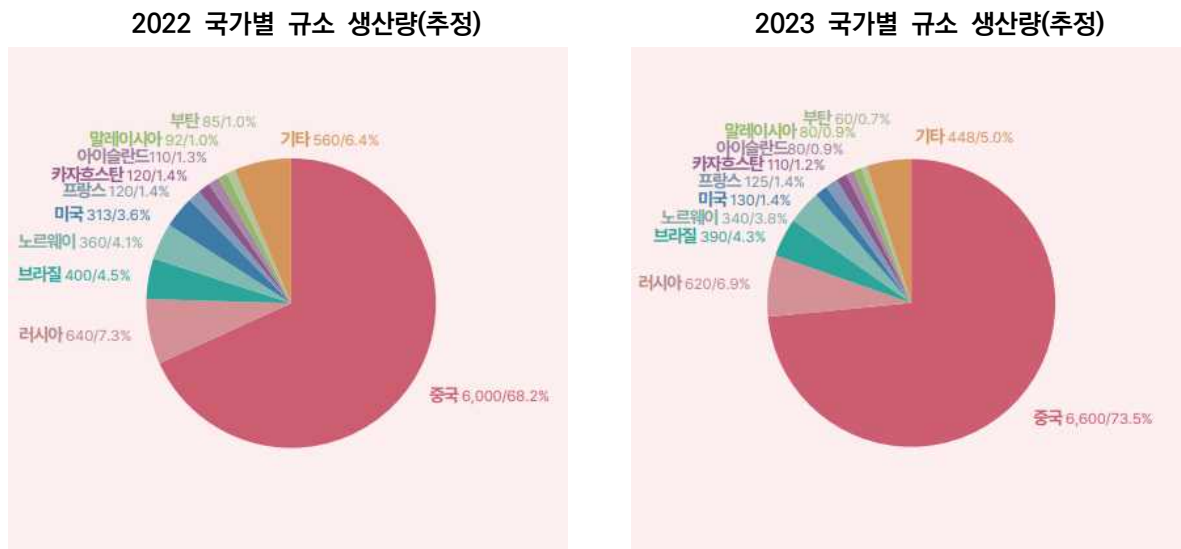
- ☞ 자동차 산업에서 더 작고 가벼운 부품과 친환경적 차량 제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실리콘 제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 실리콘의 특성은 특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제조에서 내구성, 온도 저항성, 유연성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함

- 실리콘 기반 부품은 전기 및 전자 장치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며,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요구를 충족시킴
- 건설산업에서 미국의 인프라법 시행과 인도 등 신흥국의 도시화로 인해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리콘 자재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재는 건축물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규소 매장량/생산량 현황

- 주요 생산국에서 충분한 양의 규소를 부존하여 매장량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음
- 주요 규소 생산량은 중국(660만 톤, 73.5%), 러시아(62만 톤, 6.9%), 브라질(39만 톤, 4.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규소 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출처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국내 수출액 추이 ('20~'24년)

- '24년 규소의 수출액은 827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 감소

[표 1]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천 달러)	672	1,110	1,975	857	827

국내 수입액 추이 ('20~'24년)

- '24년 규소의 수입액은 1,717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51.1% 감소

[표 2]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천 달러)	5,332	19,476	24,477	3,514	1,717

☐ 규소 생산·기술개발 현황

- ▶ 한국은 고순도 규소(특히 반도체용 실리콘)의 자원 매장량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주요 수입처는 중국, 일본, 노르웨이 등으로,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기술경쟁력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가격과 공급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음. 특히 태양광 산업과 연계된 대규모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생산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용 고순도 실리콘 영역까지 빠르게 확대 중임
- ▶ OCI, 한화솔루션, 웨이퍼웍스(한국), Wacker Chemie(독일), GCL-Poly(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고순도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여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음. 특히 웨이퍼 가공 및 결정 성장(CZ법 등) 기술에서의 품질 차별화가 기업 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반도체 미세공정의 고도화와 전력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초고순도 실리콘 소재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결정 성장의 정밀도, 웨이퍼 평탄도 제어, 저결함 고순도 실리콘 개발 등 고난도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R&D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 한국재료연구원(KIMS), 한국세라믹기술원, ETRI 등 국내 연구기관은 고순도 실리콘 정제 기술, 결정 성장 기술, 초박막 웨이퍼 가공 기술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용 규소의 불순물 저감 및 결정 결함 제어 기술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차세대 3D 반도체 및 전력반도체용 실리콘카바이드(SiC), 갈륨나이트라이드(GaN) 등 대체 소재와의 융복합 기술도 병행 연구 중임
- ▶ 사용 후 태양광 패널, 반도체 웨이퍼 스크랩 등으로부터 고순도 실리콘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화학적 습식 정제와 건식 열처리 공정 기반의 회수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규소 회수율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술이 산업계 및 정책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4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K-STAT)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언론, 보도자료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등

공급망 더 알아보기

전락광물의 공급 위험 및 파급효과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5.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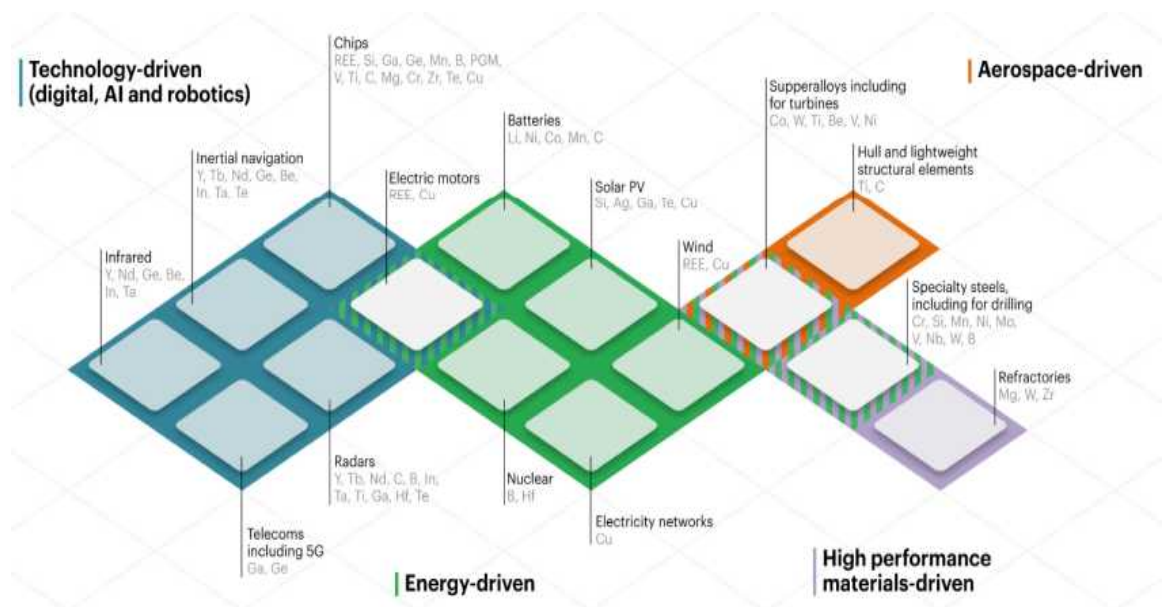
원문 IEA(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전략광물은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첨단산업 등의 전략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일부 광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전략광물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단 한 개 광물의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는 엄청나므로 정책적, 공급망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광물에 대해 알아보자.

□ 전략광물이란?

- 에너지, 기술, 우주항공 등의 광범위한 산업에서 전략광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 전략광물은 주요 에너지 광물(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망간,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을 의미함
 - * 전략광물 20종: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망간, 실리콘, 안티모니, 크롬, 갈륨, 게르마늄, 인듐, 몰리브덴, 탄탈륨, 텔루륨,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지르코늄
- ▶ 전략광물은 우주항공, 방산, 첨단, 에너지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필수적이며 특정 전략광물은 다양한 산업에서 중복적으로 사용됨

〈 전략광물의 다양한 사용 분야 〉



자료 : IEA(2025), p.244

□ 전략광물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④ 소규모 시장 및 불투명성

- ▶ 많은 전략광물 시장은 거래량이 작고 가격 정보가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아 시장 정보 접근성이 낮음
- ▶ 현물 거래는 적고, 비표준화된 계약이 다수이며, 부산물 형태로 유통되어 현물시장 지표가 부족

④ 공급 중단 등의 이상 신호 탐지 어려움

- ▶ 전략광물 시장은 규모가 작고 공식적인 가격 지표가 부족하여 이상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지정학적 위험 혹은 환경문제로 인해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실제 영향을 인식하기까지는 지연이 발생

④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규제 영향에 취약

- ▶ 공급 구조가 경직된 상태에서 수출통제 등의 무역 규제가 가중되면 심각한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 전략광물은 특히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의 공급 집중도가 높아 지정학적 위험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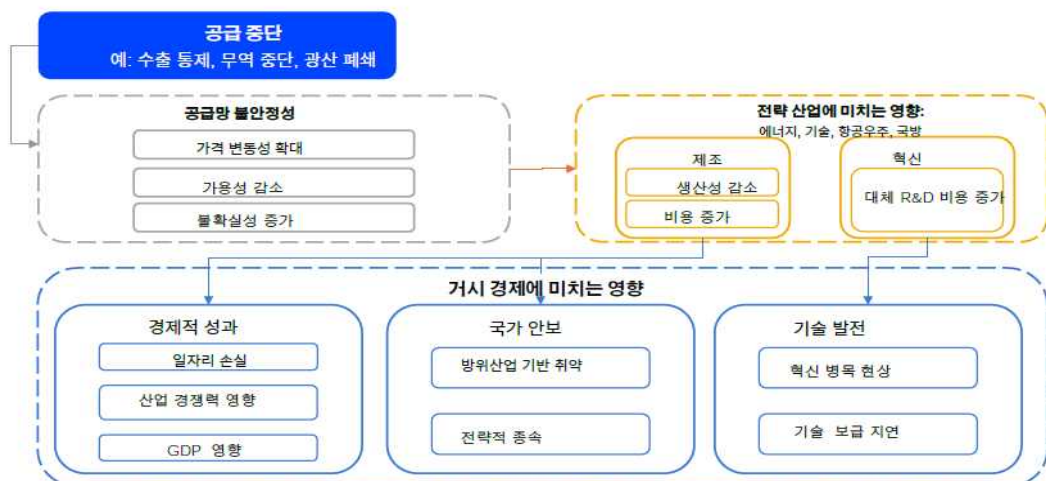
□ 전략광물의 공급 위험

- ▶ (공급 집중도) 대부분 광물이 소수 특정 국가에서 채광·정제되며, 중국은 정제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
- ▶ (가격 변동성) 전략광물의 절반 이상이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가격 변동성은 더 높으며 대체제가 없음
- ▶ (부산물 의존) 일부 전략광물은 다른 광물을 정·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므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은 제한적

□ 전략광물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파급효과

- ▶ 다양한 전략산업에서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리튬, 희토류, 갈륨, 텅스텐 등 전략광물의 수급 위험은 그 파급력이 크게 확산될 수 있음.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품목 광물의 대부분이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광물임
- ▶ 이러한 전략광물은 시장 규모는 작을지라도 단 한 개 광물의 공급 차질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공급망 측면에서 범용성이 높은 광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전략광물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전략산업 및 후방산업의 파급효과 〉



자료 : IEA(2025), p.256

공급망 소식통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7.11.)

작성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美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

7월 9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5. 7. 16. (수)
14:00 ~17:00

장소

KOTRA 본사
B1 국제회의장

대상

미국으로 수출 (예정)하는
기업 150개사
선착순 오프라인 진행 | 좌석 한정

www.kotra.or.kr

지금 KOT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하세요.
7월 11일 금요일까지 | 선착순 조기 마감 | 참여기업에 증정품 제공

시간 (장영)	내용	비고
14:00-14:05 (5')	인사 말씀	KOTRA
Session I 美 관세 조치 현황 및 주요 내용		
14:05-14:30 (25')	美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 사항	KOTRA 지역통상조사실
14:30-14:55 (25')	美 관세정책 주요 내용 및 수출기업 유의 사항	관세청
14:55-15:10 (15')	Coffee Break	-
Session II 관세 실무 대응 전략		
15:10-15:35 (25')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한국원산지정보원
15:35-16:05 (30')	美 관세청(CBP) Advance Ruling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관세법인 커스앤
16:05-16:15 (10')	관세정책 대응 컨설팅 사업 소개 및 마무리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Session III 1:1 맞춤형 컨설팅(사전 매칭) 및 CBP E-Ruling 대행 지원 등 심층 컨설팅 사업 접수		

무료

문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8

글로벌 경제지표 ['25.7.1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5말	6/27	6/30	7/1	전일비	전년말비
₩/US\$	1,288.00	1,472.50	1,380.10	1,357.40	1,350.00	1,355.90	0.44%	△7.92%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76.60	1,354.10	1,374.50	1,353.40	△1.54%	△8.17%
₩/CNY	181.37	202.38	192.00	189.28	188.43	189.11	0.36%	△6.56%
₩/¥100	912.25	932.67	959.00	940.60	938.00	944.20	0.66%	1.24%
¥/US\$	141.19	157.88	143.91	144.31	143.92	143.61	△0.22%	△9.04%
US\$/EUR€	1.1105	1.0429	1.1341	1.1700	1.1727	1.1780	0.45%	12.95%
CNY/US\$	7.1092	7.2992	7.1903	7.1698	7.1638	7.1647	0.01%	△1.84%

* '24년 평균 환율: (₩/US\$)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S\$) 1,426.1원, (₩/¥100) 96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6/30	7/1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8.75	68.16	△0.6	△2.2	△7.8
						△0.9%	△3.1%	△10.2%
철광석		89.35(9.23일)	100.00	94.15	93.15	△1.0	3.8	△6.8
						△1.1%	4.3%	△6.8%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10,040.00	10,061.00	21.0	1975.5	1355.0
						0.2%	24.4%	15.6%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593.00	2,604.00	11.0	494.0	87.5
						0.4%	23.4%	3.5%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020.00	14,965.00	△55.0	0.0	△135.0
						△0.4%	0.0%	△0.9%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4말	'25.5말	6/26	6/27	6/30	6월(~30)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2.05	2.83	5.55	5.55	5.50	4.24
(%, YoY)	△14.8	10.8	0.5	4.9	48.5	191.0	191.0	190.5	126.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7.15	7.54	8.30	8.30	8.60	7.95
(%, YoY)	△2.3	4.0	3.9	11.9	18.2	30.7	30.8	35.6	24.9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6/13	6/20	6/27	전주비(6/20)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2088.24	1869.59	1861.51	△0.4%	△24.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6/24	6/25	6/26	6/27	전주비(6/26)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681	1665	1553	1521	△2.1%	52.6%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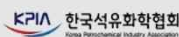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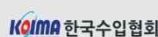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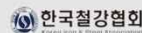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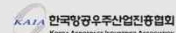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무역안보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